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3부 .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지평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가치 추구를 중요 과제로 삼아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적가치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전문성을 쌓고 특화된 업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01

지평의 업무영역

지평은 소송·중재, M&A, 기업,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증권, PE,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노동, 도산·구조조정, 지식재산권, 형사, 조세, 헌법, 행정, 보험, 해상, 국제중재, 상속·가사 전문분야에 걸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금융	분쟁해결	건설·부동산
• M&A • 기업법무일반 • 기업지배구조 • 도산·회생·기업구조조정 • 해외투자 • 외국인투자 • 공공정책·입법지원 • 위기관리 • ESG센터	• 부동산금융·실물투자 • SOC • 프로젝트 파이낸스 • 구조화금융/파생금융 • 인수금융 • 선박·항공기금융 • IPO·자본시장 • 사모펀드·PE • 금융규제·금융회사 자문 • 금융회사M&A·해외진출 • 금융·증권·보험분쟁	• 금융·증권·보험분쟁 • 건설·부동산 분쟁 • 공정거래 분쟁 • 인사·노무·노동 분쟁 • IP 분쟁 • 도산 분쟁 • 경영권분쟁·투자자소송 • 제조물책임·소비자분쟁 • 상사·민사분쟁 • 해상·항공 • 국제중재 • 해외소송 • 헌법·행정쟁송 • 의료소송 • 가사소송 • 조세쟁송 • 언론소송	• 건설·부동산 분쟁 • 건설행정·부동산공법 • 공공입찰·공공계약 • 국제건설

공정거래	인사·노무	형사	지식재산권
• 부당공동행위(담합) •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 기업집단 및 내부거래 규제 • 기업결합 • 하도급 •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 • 표시광고·약관 • 공정거래 분쟁	• 인사·노무·노동 분쟁 • 산업안전보건·산업재해	• 기업형사 • 일반형사 • 금융형사 • 증권형사 • 건설·부동산 형사 • 노동형사 • 조세형사 • 공정거래형사 • 선거형사 • 종교형사	• 특허·실용신안·직무발명 •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 • 저작권 • 영업비밀·산업기술·기업정보보호 • 개인정보·데이터 • IP Management 및 전략 컨설팅 • 지식재산권 남용·기술 탈취 분쟁 • 불공정무역행위·통관

상속·가사·가업승계	조세·조세회계센터	보험	ESG센터
•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 등 분쟁 • 이혼 및 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 • 상속세 및 증여세, 가업승계 • 기타 가사사건	• 조세쟁송 • 조세자문 •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 대응 • 상속세 및 증여세, 가업승계 • 조세형사 • 회계규제 • 관세 및 국제통상 • 조세회계센터	• 보험 분쟁 • 보험 법령 • 특종 보험 • 해상·항공보험·재보험 • 보험회사 검사 • 보험회사 지점 설립/운영 • 보험회사 인수 합작 • 보험회사 상장	• 환경 • 인권경영, CSR/지속가능성/사회적가치 • 준법·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산업별	국가별
• 바이오·제약·의료기기·헬스케어 •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 에너지·자원·인프라 • 건설·부동산 • 전자금융·핀테크 • 신기술·신산업 • 엔터테인먼트·스포츠·레저 • 게임·e스포츠 • 공공계약·철충교역 • R&D • 교육·학교 • 종교	•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미얀마 • 중국 • 러시아·중앙아시아 • 캄보디아·라오스·태국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 필리핀 • 일본 • 인도·중동·아프리카 • 영국·독일·유럽 • 미국·캐나다 • 호주·뉴질랜드 • 중남미 • 북한·북한투자지원센터

02

사업성과

지평의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도전을 통해 도약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2020년 지평은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가 50여 명 증원되어 규모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넥서스 부동산팀을 영입하고, 조세, 공정거래, 형사 등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다양하게 영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연구관 제도, 중요사건 집중관리 제도 등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20주년을 맞아 지평의 가치와 철학을 다지는 한 해로 삼았고, 특히 사회적가치 경영을 강화하고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03

신규업무개척

지평은 새로운 시장 환경에 발맞춰 2020년에 아래와 같이 팀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조직을 대폭 강화하여 신규업무를 개척하였습니다.



조세회계센터

지평은 2020년 조세팀을 대대적으로 보강하고 회계 기타 관련 업무와의 결합을 통하여 조세회계 분야의 토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조세회계센터를 발족하였습니다. 지평 조세회계센터는 지평의 탁월한 실력과 전문성에 기반한 [조세팀] 및 [회계규제팀]을 중심으로, 상속·가사·기업승계팀, 형사팀, 공정정책·입법지원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법인 내 유관 전문서비스팀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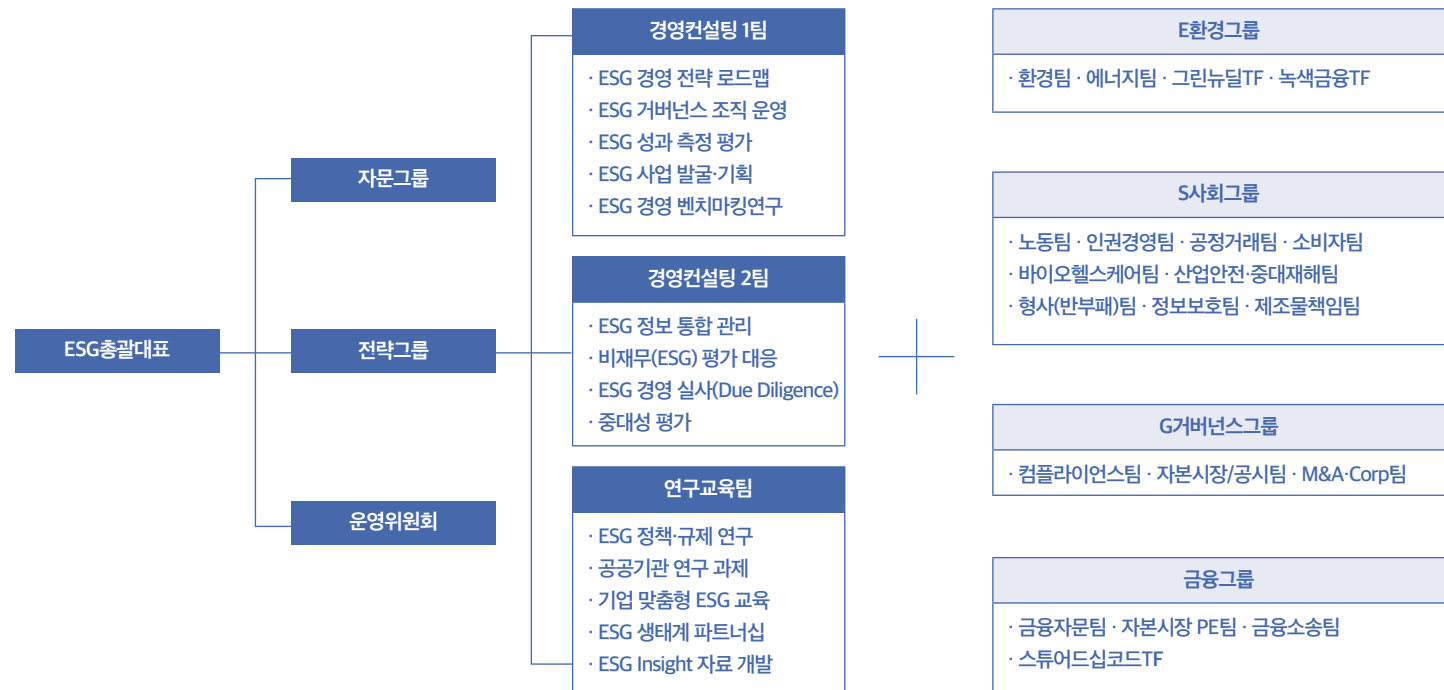
디지털경제그룹 및 그린뉴딜TF

지평은 그린 뉴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환경팀과 에너지팀, 공공정책팀을 주축으로 '그린뉴딜TF'를, D.N.A(Data, Network, AI), 스마트시티, SOC를 비롯한 각 산업·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디지털경제그룹'을 각각 구성하여 한국판 뉴딜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경제그룹'은 양영태 대표변호사가 총괄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필수적인 개인정보,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데이터 기반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온라인교육·실감콘텐츠 등 비대면 산업과 플랫폼 사업, SOC 분야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산업 분야별 전문가들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성택 대표변호사가 총괄하는 '그린뉴딜TF'는 환경, 에너지, 금융, 입법 분야의 전문가들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금융 자문을 비롯하여 각종 인허가 자문 및 소송, 배출권거래제(ETS), 스마트그리드, 그린모빌리티,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각종 기후변화 대응 자문, 인수합병(M&A)·구조조정 등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위험의 평가 및 대응 자문, 토양·대기·수질오염 등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까지 그린 뉴딜 관련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SG센터

지평 ESG센터는 국내 최고의 ESG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ESG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제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ESG 경영 리스크 및 성과 관리 차원에서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각 세부 자문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ESG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ESG센터는 대법관을 역임하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비상임)을 맡고 있는 김지형 대표변호사가 고문을, 기업법무와 사회적가치의 조화, ESG 및 인권경영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임성택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딜로이트 ESG전략담당 이사로 활동한 바 있는 이준희 그룹장이 지평 ESG센터 전략그룹 업무를 총괄하며, 금융감독위원회 출신으로 금융규제 업무를 오래 수행한 윤영규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으로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이준길 고문, 공익변호사단체 공감의 창립멤버로 공익변호사로 출발하여 처음으로 로펌의 구성원변호사가 된 김영수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환경·에너지법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류혜정 변호사, 외국계은행 사내변호사(임원) 출신으로 금융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인 심희정 변호사,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사회정책과 인권경영을 공부하여 석사학위(MPA)를 취득한 민창욱 변호사,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에서 15년 간 상장 및 공시 업무를 담당했던 장영은 전문위원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환경팀

지평 환경팀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자연환경, 환경영향평가 등 전통적인 환경분야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모빌리티,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환경분야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관련 입법·정책 자문부터 개별적인 환경이슈에 대한 자문은 물론 소송을 포함한 환경분쟁의 해결까지 환경분야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팀

지평 인권경영팀은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진정, 민원, 소송 등 사건에 관해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권경영체계 구축 자문, 인권영향평가 실시, 특정 인권 이슈에 대한 실사 및 조사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 경제 법제 구축, 임팩트 금융 자문 등에도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팀

지평 컴플라이언스팀은 부패방지·공정거래·금융·기업지배구조 등 개별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사전적 예방책 및 사후적 구제 절차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준법통제, 준법지원) 시스템 구축, 내부신고 수탁 및 대리, 내부조사 및 포렌식 업무, 노동·하도급·이사의 배임횡령 등에 대한 실태점검 등 기업의 준법감시 및 준법지원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중대재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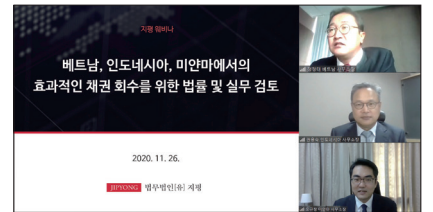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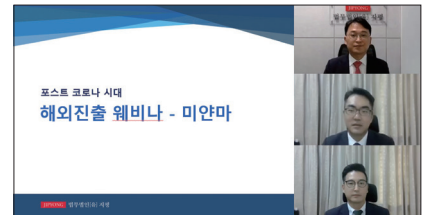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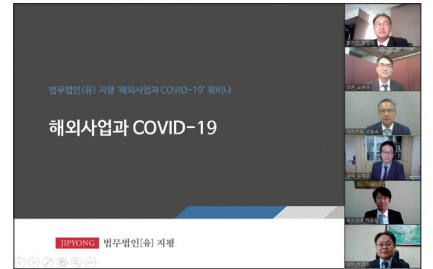
도급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2020. 1. 시행에 이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중대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자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에는 다양한 리스크 발생이 예상되는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언상 모호한 개념이 많아 법 시행 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평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은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 ESG 전문변호사 등 노동·형사·기업법무·건설부동산·ESG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별 특색이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한국안전학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등 외부 기관과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예방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외업무

지평이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국가에서는 법률 해석과 함께 현지 실무 관행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평은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제한으로 인해 현지 전문가의 조언 및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을 위하여 웨비나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날짜	세미나(웨비나) 명	해외사무소 (국가)
2020. 5. 27.	'해외사업과 COVID-19' 웨비나	러시아, 미얀마,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2020. 7. 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진출 웨비나 - 미얀마	미얀마
2020. 11. 26.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의 효과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 및 실무 검토' 웨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04

법조윤리의 준수

지평은 고객, 임직원 및 회사, 국가와 사회에 갖는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윤리·준법경영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위하여 회사 설립과 동시에 「법무법인(유한) 지평 윤리헌장」(이하 ‘윤리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지평의 윤리헌장은 지평의 모든 구성원의 업무 수행과 일상생활에서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행동 원칙입니다. 지평의 모든 구성원이 윤리헌장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윤리헌장

지평은 설립과 함께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모든 구성원에게 관련법규와 윤리규범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윤리헌장은 의뢰인을 위한 충실의무, 고지의무, 정당한 범위의 업무처리, 보수의 크기와 무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 쌍방대리 금지, 사익추구금지, 차별금지 등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운영

지평은 2016년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7월 1일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형 대표변호사)를 정비하였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경영위원회가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의 대표변호사와 3명의 구성원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지평의 모든 구성원에게 법조윤리, 반부패 및 청렴의무준수 및 실천을 요구하며, 이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사윤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지평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윤리교육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윤리헌장

1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전문 직역 또는 자신이 보좌하는 전문가의 직역에 따라 적용되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변리사법과 관련 규정, 공인회계사법과 관련 규정 등 일반적인 윤리규범의 내용을 항상 이해하고 성실히 지켜야 하며 지평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에 관여하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품위를 지켜야 한다.

2

지평의 구성원들은 지평의 구성원 사이에 합의된 신조, 협약 및 규칙을 항상 이해하고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지평의 구성원들은 보편적인 윤리 또는 사회정의에 반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내용의 업무를 수임하지 않으며 그러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지평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5

지평의 구성원들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사회정의 또는 직업적 양심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지않아야 한다.

6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구성원들은 위임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다.

7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동일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대방을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8

지평의 구성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의뢰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9

지평의 구성원들은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투자를 비롯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10

지평의 구성원들은 공익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지평의 구성원들은 업무 처리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회사에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였거나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자신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충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지평의 구성원들이 이 윤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는 사항 또는 이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경영위원회, 윤리위원회 또는 자신이 보좌하는 전문가에게 보고하거나 질의하여야 한다.

윤리성 지표 준수

항목	존재여부
이익충돌 시 내부통제절차	있음
위법행위 발견 시 내부통제절차	있음
부정청탁금지법준수기준여부, 교육여부,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있음
전관 변호사 및 비법조인 전문가 활용에 관한 법조윤리정책	있음
비법조인 전문가 사건수임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있음
과다수임, 비윤리적 사건수임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있음

윤리 통제 절차

경영위원회와 각 팀장들은 윤리성, 청렴성, 반부패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윤리현장에 기초하여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위원회에 제보되거나 신고된 사건,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청 받은 사건, 경영위원회 및 감사가 조사를 요청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윤리현장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인력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절차가 존재합니다.

공직 퇴임 전문가 근무 현황

법관, 검사, 장기복부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제31조 제3항).¹⁾ 지평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를 영입하더라도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 사이에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의 사건에 관하여는 이들의 업무 개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2020년도에 공직퇴임 전문가의 업무수임으로 징계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1) 다만 검사는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2항 규정으로 인해 2년간 수임이 제한됩니다.

공직 퇴임 전문가 근무 현황

[법조인]					
	성명	공직 퇴임일	입사일	퇴직시 직위	
1	강경운	1998-08	2011-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2	강호정	2012-02	2013-12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검사	
3	곽경란	2019-03	2019-03	대한민국국회 보좌관	
4	권창영	2017-02	2017-03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5	김강산	2019-02	2019-03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6	김동아	2019-02	2019-03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7	김지형	2011-11	2012-12	대법원 대법관	
8	문수생	2018-02	2018-03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9	박영주	2001-02	2001-02	부산지방법원 판사	
10	박정수	2015-02	2015-03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11	사봉관	2016-02	2016-0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2	성창익	2012-02	2017-12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3	신승기	2007-08	2012-06	부산지방법검찰청 특수부 검사	
14	엄상섭	2020-02	2020-03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15	오자성	2017-08	2017-09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검사	
16	이공현	2011-03	2011-03	헌법재판소 재판관	
17	이상근	2007-02	2012-06	부산고등법원 판사	
18	이재승	2020-08	2020-10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부장검사	
19	이홍재	2009-01	2013-04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외사부장검사	
20	임형태	2020-02	2020-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21	장기석	2019-08	2019-09	제주지방법검찰청 차장검사	
22	정희찬	2007-02	2020-02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검사	
23	최세훈	2016-01	2016-02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검사	
24	최영남	2017-02	2017-02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5	한재상	2020-02	20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6	한재철	2002-02	2011-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판사	

[비법조인]				
	성명	공직 퇴임일	입사일	퇴직시 직위
1	강영주	2002-04	2009-09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	김두영	2019-06	2019-09	KOTRA 상임이사
3	김병률	2016-12	2017-0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4	김석동	2013-02	2015-04	금융위원회 위원장
5	김시문	2017-12	2018-01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6	서문용채	2011-02	2014-07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7	이준길	2006-11	2015-11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팀장
8	장영은	2018-02	2018-0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 상장부 팀장
9	진연수	2006-12	2012-11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사무관
10	최현민	2016-12	2020-11	부산지방국세청 청장

고객의 비밀 보호

로펌과 그 소속된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고객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평은 이를 윤리현장 제8조를 통해 한층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구성원들은 지평과 그 구성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평의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 및 의뢰인을 위하여 처리한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평의 구성원들은 의뢰인 및 의뢰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일상적인 말과 행동, 회사의 관리 및 제3자에 대한 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준수

지평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고객과 구성원, 실무수습참가자 등의 귀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보안 규정」을 마련하여 비밀등급에 맞게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 및 안전 관리 지침」에서 문서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특히 고객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문서는 담당 전문가 또는 직원 외의 자에게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또한 관리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고객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관해 자체 점검 및 구성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서울사무소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에게 보안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개인정보 침해 구제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지평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성명 : 이소영	부서명 : 전산팀
직책 : 변호사	담당자 : 김진구 부장
연락처 : 02-6200-1721	연락처 : 02-6200-0715

이해충돌 방지

지평은 변호사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의 엄격한 컨플릭트 체크 기준을 도입하여 새로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의 의뢰가 있을 경우 기준에 대리하는 의뢰인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고객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평 컨플릭트 체크 기준」은 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송뿐 아니라 자문·고문계약 체결 시에도 실질적 상당 전에 컨플릭트 체크를 하여 수임하거나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한 다른 사건에 대해 컨플릭트 체크를 하여 의뢰인의 신뢰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정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다른 대리인을 소개하는 등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5

고객과의 소통

지평은 직원, 고객, 공급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펌으로서 법조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뉴스레터,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객에게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며, 고객과 끊임없는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웹과 모바일 어느 환경에서나 직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였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회계 등의 전문분야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평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글을 엮은 '법률의 지평'을 발간하여 높은 수준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평 주최 세미나

지평은 법률, 회계, 협상 등 업무의 전문성과 기업,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증권, PE,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노동, 도산·구조조정, 지식재산권, 형사, 조세, 헌법, 행정, 보험, 해상, 국제중재, 상속·가사 등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평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문성과 실력, 경험, 지식을 고객 및 시민들에게 세미나, 강연, 기고 등의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2020년도 지평이 주최한 세미나

날짜	제목
2020. 2. 3.	노동팀 고객 초청 세미나
2020. 2. 6.	회계규제 대응전략 세미나
2020. 5. 27.	'해외사업과 COVID-19' 웨비나
2020. 6. 24.	'LEGAL 500 기업의 위기대응 가이드,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 웨비나
2020. 7. 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진출 웨비나 - 미안마
2020. 10. 30.	지평 · 두루,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 심포지엄
2020. 11. 26.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의 효과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 및 실무 검토' 웨비나



06

법제연구

지평의 법제연구

지평은 공공이익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공공분야의 법률자문 및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영역을 적극적으로 수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법률가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믿고, 더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사회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2020년도에 총 16건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및 자문 영역을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지평이 수행해온 법제연구 및 자문
온라인 저작권 관리 · 개선 방안 컨설팅 및 연구
국제법률협력요원순직심사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 관련 자문
산업 · 에너지 ODA 사업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 제 · 개정 용역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검토
기술료 요령 개정안 작성
MT-AAP-2001공항시설법 개정안 검토
물환경보전법 해설서 연구 용역
가명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령 제도개선용역
SPC 제도화 방안 연구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용역
수용자 자녀 입법 연구 및 추진
코로나 사태 관련 용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정비 방향 도출 연구 자문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07

법학 교육 지원

지평 · 두루 2020년도 하계 · 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지평은 2020년도 하계에 2차에 걸쳐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45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주의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구분	기간	대상	인원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도 하계 실무수습	1차 2020. 6. 29. ~ 7. 8.	2학년 (117)	27명	서울대(9), 연세대(5), 고려대(2), 성균관대(2), 이화여대(1), 한양대(2), 서강대(2), 중앙대(1), 경희대(1), 아주대(2)
	2차 2020. 7. 13. ~ 7. 22.			서울대(5), 연세대(5), 고려대(7), 성균관대(2), 이화여대(3), 한양대(1), 서강대(1), 서울시립대(1), 부산대(1)

두루는 2020년 겨울에 3주, 여름에 2주 동안 각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두루의 실무수습은 공익소송 기록 검토, 서면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공익단체 등 NGO와의 협력 및 교류, 그 외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두루는 공익변호사의 진로를 꿈꾸는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익변호사 양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구분	기간	대상	인원
2020년도 동계 실무수습	2020. 2. 3. ~ 2. 21.	1학년, 2학년	11명
2020년도 하계 실무수습	2020. 8. 10. ~ 8. 21.	1학년, 2학년	10명

법학 교육 지원

지평의 변호사들은 후배 법조인의 양성을 변호사의 중요한 책무로 생각합니다. 이에 지평은 예비법조인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평의 변호사들은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 대학교에 직접 출강하여 학생들에게 생생한 실무경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8명의 지평 변호사가 5개의 법학전문대학원과 1개 대학교에 출강하였고, 2020년에는 6명의 변호사가 4개의 법학전문대학원과 1개 대학교에 출강하였습니다.

법학 교육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출강현황

성명	교육기관
임성택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승수 변호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권창영 변호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배성진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김동아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평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후기

다가올 날이 기다려지는 곳, 지평

임예현 지평 실무수습

2주가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평을 경험했던 그 시간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턴기간 내내 함께 해주셨던 변호사님들의 목소리에는 지평에 대한 애정과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묻어났고, 동료 변호사님을 향한 시선에는 신뢰와 존중이 가득했습니다. 조직의 발전 동력이 사람에 있음을 믿는 지평의 철학이 그대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지평의 변호사님들은 유능한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전문성의 실현이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법률전문가로서 가져야 하는 사명감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배님들과 함께라면 변호사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평을 떠올리면, 유능한 법률전문가로서 나아갈 모습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 곁에서 배우며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도 함께 그려집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실무수습경험을 잊지 않고 전문성과 따뜻함을 모두 갖춘 변호사로 성장하는 과정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후기

평생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남장현 두루 실무수습

두루에서의 실무수습 과정은 크게 자율적인 과제 수행과, 영역별 소개 및 특강 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매일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진행되었던 영역별 소개와 특강의 내용은, 그간 한 번도 고민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자극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장슬기 두루 실무수습

두루에서 보고 들은 하나 하나의 이야기와 거기서 느낀 감정들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닦치는 순간마다 되새겨볼 수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두루에서 얻은 또 한 가지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동료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 자체로 즐거웠고, 앞으로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실무수습을 한 인턴분들과 변호사님들을 알게 된 것 자체가 큰 행복이었습니다.